AI·교통·헬스케어 혁신기술 시민이 직접 써본다

광주시, 내달 11일까지 도심 곳곳서 실증
오토웰즈·헬프티처 등 창업기업 8곳 참여

지하철 도착시간 안내시스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AI 상담 시스템

실증도시 광주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인공지능(AI)·교통·헬스케어 등 창업기업의 기술을 피부로 느끼고 혁신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지역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경험하고 작동 원리를 직접 확인하는 '시민참여 혁신기술 실증 체험 프로그램'을 1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오토웰즈(BCG(심탄도)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헬프티처(AI 기반 상담), ㈜레플러스(에너지자립형 스마트쉘터), ㈜스페이스에이아이(AI 가상피팅 키오스크), ㈜라라랩스(AI 우울증 분석 시스템), ㈜소울소프트(AI 건강관리 앱 서비스 '재다'), ㈜에스유아이씨티(실시간 열차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델퍼(자가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등 창업기업 8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실증 현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기술을 직접 적용한다.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배리어 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통해 전극을 신체에 부착하지 않아도 의자에 앉아서 심박수·호흡수·스트레스 지수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는 실증이 진행된다.

또 광주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에서는 실시간 열차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을 설치, 시민이 실제 이동 과정에서 정보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상담·가상 입어보기(피팅) 무인안내기(키오스크)·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을 실제 생활 환경에 구현해 시민이 사용성과 편의성을 체험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기술은 인공지능(AI), 교통,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광주시는 실제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해 기술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실증 성과를 축적할 계획이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스탬프 투어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광주국립과학관, 아시아문화전당, 유스퀘어, 지하철역 등 도심 곳곳의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제품을 체험한 뒤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스탬프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참여 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민들은 실증 현장에서 혁신기술을 체험한 뒤 제미나이(Gemini), 지피티(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실증 기술을 이미지로 표현해 참여할 수 있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실증의 주체가 돼 혁신 기술을 경험하는 참여형 행사"라며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실증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벤처·ICT 기업인 한자리…혁신성과 공유

광주전남벤처협회, 기업인의 밤 행사
46명 기업인·기관 관계자 유공 포상

광주·전남 벤처·ICT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도약을 다짐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4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5 광주전남 벤처기업인 및 ICT/SW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 벤처·ICT·SW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혁신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산·학 간 교류를 통해 2026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4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5 광주전남 벤처기업인 및 ICT/SW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 앞서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광주전남중기청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특강에서 김두식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본부장은 '수출, 어렵지 않아요'를 주제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현장 중심의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열린 AI 벤처기업 사업 발표에서는 지역 대표 AI 기업의 글로벌 성과가 소개됐다.

채인원 에코피스㈜ 대표는 AI 기반 수질 정화 연계 수상 태양광 시스템, AI 녹조 제거 솔루션 고도화, 리벨리온 AI NPU를 활용한 UAE 두바이 기름 제거 로봇 운영 사례 등 'AI Water Robotics' 사업을 발표하며 지역 AI 기술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주제 특강에서는 정영훈 엔백㈜ 대표가 '미래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정 대표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녹색금융 활성화, 그린워싱 방지 등이 K-택소노미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탄소배출 관리가 기업 존립에 직결되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2025 광주전남 벤처인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4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협회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은 기업인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벤처·ICT 기업들이 AI와 수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우정사업본부, 전자담배 디바이스 회수 서비스

내년 1월부터 우체국 창구·우체통 활용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재단, 한국필립모리스㈜와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편회수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정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해 전자담배 디바이스 회수체계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재단은 전자담배 디바이스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편회수 봉투 제작과 캠페인 운영·홍보 등에 힘쓰며,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사용이 종료된 디바이스(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우편전용 회수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디바이스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며, 재활용 업체는 모아진 디바이스를 처리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콘진원,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애니메이션 플랫폼 라프텔과 최근 CGV 나주에서 'K-애니메이션 상영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지난달 진행된 첫 번째 상영회에 대한 지역민의 긍정적인 반응과 관람 확대 요청을 반영했다.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2곳을 비롯한 지역민이 참여해 웹툰 기반 극장판 애니메이션 '용한소녀'를 관람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이번 상영회가 아이들과 지역 주민에게 작은 문화적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주민이 다양한 K-콘텐츠의 매력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문화 나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